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1-39>

2001. 11. 7

KIEP 북경사무소

북경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영향

1. 개요

- 지난 10월 24일 북경에서 올림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세미나(올림픽 경제와 기업 발전 전략)가 개최되었는데, 저명 경제학자 樊綱 교수를 비롯해 국가통계국 邱曉華 부국장 등 중국 국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가 중국 거시경제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음.

2. 북경올림픽의 경제적 영향

- 향후 7년간 올림픽을 대비한 투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.
 - 중국 국가통계국 邱曉華 부국장은 북경시가 7년간 약 2,800억 원, 연평균 약 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바, 중국 전체에는 전반기 5년간 연 평균 0.4% 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 후반기 3년간은 평균 0.3%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함.
 - 북경의 올림픽 개최 효과는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상승이외에도 경제 시스템, 정책, 제도 등의 개방화 및 시장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
 - 또한 올림픽에 대비한 북경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프라 건설 확대 등 건설 경기 활성화, 스포츠 산업 발전, 관광산업, 금융서비스, 광고, 부동산 등 업종의 성장이 예상됨.
 - 특히 현재 중국의 스포츠산업은 전체 GDP의 1% 미만에 불과하지만, 7년후에는 5%이상에 근접할 것이라고 국가통계국은 분석하고 있음.

- 그밖에도 올림픽 개최와 WTO 가입이 향후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▲급속한 도시화(현재 중국의 도시화는 36% 수준), ▲기업 소유권 개혁(국유기업은 전체 기업의 1/3), ▲동서부 지역격차 확대, ▲시장경제 활성화, ▲정보화 및 공업화 진전, ▲국민 생활 수준 향상(향후 7년간 경제성장률은 7%이상 유지 가능) 등이라는 분석임.

□ 북경시의 올림픽 개최 결정은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유리함.

- 樊綱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국내 및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국제화 수준이 급진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.

o 또한 올림픽을 통해 중국 기업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, 스포츠 산업이 더욱 각광을 받는 동시에 스포츠와 직·간접적인 연관 산업인 의약, 레저, 문화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그 밖에도 올림픽과 관련 ▲중복 및 맹목 투자 가능성, ▲2008년 전후의 수요 급증에 따른 경기 과열, ▲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의 사후 관리 및 활용 문제, ▲투자의 북경시 편중 및 북경시를 비롯한 대도시지역 임금, 지가 등 물가 상승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

□ 한편,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“추계보고”에서 2008년 북경이 올림픽 개최 도시로 결정된 이후의 경제 성장 효과를 분석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향후 7년간 매년 평균 470억 원을 투자할 경우, 2002년 경제성장률은 0.5%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되며, 동 금액의 50%이상이 신규 투자될 경우, 경제성장률은 다시 0.2%포인트 상승할 수 있을 것임.

3. 평가 및 시사점

□ 북경의 올림픽 개최는 국내외 기업에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.

- 향후 4~5년간 북경시의 건축업, 부동산업, 교통운수업, IT산업, 외식업 등의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.
- o 북경시 통계국이 발표한 《올림픽과 기업발전 상관관계》에 따르면, 올림픽을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업이 조사대상의 83.3%,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퇴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기업은 16.7%에 불과하였음.
- o 또한 생산량 및 상품소비량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건축업에서 76.2%, 부동산 건설업에서는 90%이상에 달했으며, 외식업과 숙박업의 각각 75%와 86.7% 기업이 매출액 증가를 전망하였음.

- 그러나 현재 북경시 소재 기업들이 자금난, 동종 업계의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올림픽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개혁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.
- o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업이 59%, 과도한 경쟁을 지적한 기업이 53%, 인재부족을 호소한 기업이 39%, 기업관리 수준 미흡과 시장질서 혼란을 지적한 기업은 각각 36%, 33%에 달한다고 지적되고 있음.

□ 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북경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- 최근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 중국 수출 및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, WTO 가입과 올림픽 개최지 결정 등이 투자와 소비 기대심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테러사태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.
- o 한편, World Bank와 중국사회과학원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7%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바, 13억 인구의 내수시장과 낮은 IT 산업 의존도 역시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지적함. 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國家信息中心, 금년도 경제성장을 7.4%로 예측

- 금년도 중국의 GDP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7.4%, 0.7%로 예측된다고 국가신식중심이 밝힘.
- 신식중심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에 대한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유투자와 외국인투자의 빠른 증가가 안정 성장을 유지하는 주요 원동력이라고 함.
 - 금년도 GDP총액은 전년동기대비 7.4% 증가한 97,093억 원으로 예상
 - 그중 전사회 고정자산투자의 연간 증가율은 13.5%로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주요인임.
 - 연간 소비수요 증가율은 9.2%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 유지
 - 연간 대외무역 흑자는 지난해 동기의 242억 불에서 156억 불로 감소, 순수출의 감소가 GDP 증가율을 약 0.7% 포인트 둔화
 - 1-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질액은 20.7%(아시아금융위기 이래 가장 높음) 증가한 322억 달러
 -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9.9% 증가한 37,534억 원, 소비수요의 안정 증가는 국외수요 하락으로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보완해 줌
- 보고서는 금년도 주민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0.7%이나 4/4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인바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비교적 큼. (工商時報, 2001. 11. 2)

2. 중국, 4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처리액 930억 원

- 최근 열린 “2001부실자산처리국제심포지엄”에 의하면 금년 9월말 현재 4개 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한 부실자산은 930.8억 원, 회수액은 377.7억 원(현금 232.8억 원)으로 금융리스크 해소 및 상업은행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해 크게 기여했음.
- 1999년 설립된 信達, 華融, 長城, 東方 등 4개 금융자산 관리공사는 지난 2년간 국유상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총 13,939억 원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고, 580개 기업의 4,050억 원에 달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주식전환을 실시했음.
- 그중 信達은 자산처리금액 362억 원, 회수액 181억 원, 그중 현금회수액이 117

억 원으로 자산회수율이 50%, 현금 회수율이 32.32%임.

- 華融은 자산처리금액 184.72억 원, 회수액 88.73억 원, 그중 현금회수액이 56.21억 원으로 자산회수율이 48.02%, 현금 회수율이 30.43%임.
- 長城은 자산처리금액 257억 원, 회수액은 67억 원, 그중 현금 회수액은 28억 원임.
- 東方은 처리금액 154.16억 원, 회수액 65.59억 원, 그중 현금회수액은 31.76억 원임. (國際商報. 2001. 10. 31, 중국경제신식망 2001. 11. 5)

3.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대출비율 26.6%

- 戴相龍 중국인민은행장은 최근 열린 “2001부실자산처리국제심포지엄”에서 9월 말 현재 4대 국유독자 상업은행의 대출총액(인민폐로 환산한 외화대출 포함)이 6.8조원이며 그중 부실대출이 1.8조원으로 전체 대출총액의 26.6%를 차지, 기존 실액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%라고 함.
- 戴행장은 10·5기간중 4대 국유독자 상업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연평균 2-3%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함.
- 지난 2년간 4대 자산관리공사가 4대 국유상업은행과 개발은행으로부터 1.4조원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매입, 따라서 국유은행의 부실자산비율이 평균 9.7% 하락함.
- 대은행장은 자산의 질을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대출의 질을 5등급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함.
- 대은행장은 중국의 금융운영이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들었음.
 - ① 인민폐 가치의 안정,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지난해 상승율이 0.4%, 금년 1-9월은 1%임.
 - ② 인민폐 환율의 안정, 현행 명목 환율은 1994년 대비 5% 상승에 그치고 물가요인을 감안할 경우 상승폭은 30%를 상회함.
 - ③ 주식시장 발전의 규범화
 - ④ 양호한 국제수지 상황, 외채관리 안전지표가 경계선보다 훨씬 낮고 외환보유고가 2,000억 불 초과(工商時報, 2001. 11. 2)

4. 중국정부,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세우대 조치 실시

- 李榮融 경무위 주임은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

재정지원과 세수우대 조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.

-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기술개조 프로젝트의 국산설비 투자에 대하여 40%의 기업소득세 감면
- 국유기업의 정리해고자가 설립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 감면 우대정책 향수
- 전국시범에 포함된 비영리성 중소기업 신용담보 및 재담보기구의 경우 3년간의 영업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면제
- 중소기업 설립시 등록자금 기준을 낮추고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
-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 능력과 경영자 혁신 의식 및 창업정신 등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임.

- 李주임은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결이 현 중소기업의 발전 장려 및 촉진의 중점이라고 하면서 국유상업은행 중소기업신용대출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.
- 중소기업대출담보체제 강화는 융자난 해결을 위한 한가지 수단인바, ①담보기구 혹은 정책성 은행을 통해 상업은행의 대출리스크를 분산 및 분담하고 ②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변동폭을 확대하며 ③중소기업의 대출담보수속과 조건을 간소화하며, ④상업은행 현금 지점의 대출심사비준권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심사비준 절차를 줄여야 할 것임. (工商時報, 2001. 11. 6)